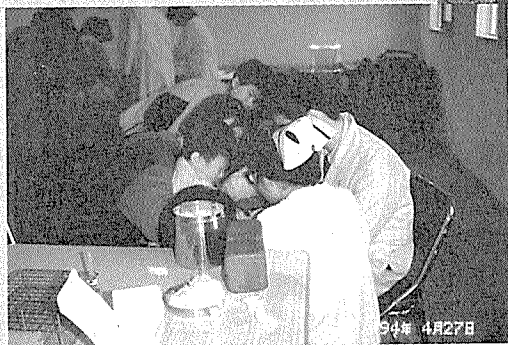




작은 실천이 큰 행복을 만듭니다

건협경기지부 정박아 수용시설 해인원 · 인덕학교 원생 무료검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는 지난 4월27일, 정박아 수용 사회복지시설 해인원 · 인덕학교 원생 150여명에 대한 무료건강검사를 실시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해 특별히 특수이동검진 차량까지 동원된 이날의 무료검사에는 탤런트 조춘씨까지 동참해 원생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날로 각박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작은 사랑의 실천이 그들에게는 커다란 행복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던 이날의 검사 현장을 소개한다.



행동은
보통사람에 비해
부자유스럽지만,
원생들은 모두
진지하게
검사에
응해 주었다.

●정박아들에게 작은 사랑을

무료검사가 실시된 지난 4월 27일, 해인원과 인덕학교(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탄벌리 소재) 앞마당은 밝은 햇살아래 호기심에 가득찬 원생들의 눈빛으로 술렁거렸다.

괴상(?)하게 보이는 검진버스,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 그들의 손에 의해 설치되고 있는 검진 장비들, KBS에서 나온 “전국은 지금” 촬영팀의 재빠른 움직임……. 이 모든 현상들이 그들에게는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를 일이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자신들의 가족들에게서 조차 외면당했을 이들에게 작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 마련된 무료 검진은 이렇게 그들의 일상에 잔잔한 파문을 던지며 시작되었다.

●진지하게 검사에 응하는 원생들

원생들은 검진을 받기 위해 차례로 줄을 서서 기다렸다. 소변을 받고 피를 뽑고, X-Ray를 찍고……. 행동은 보통 사람에 비해 부자유스럽지만 모두들 진지하게 검사에 응해 주었다.

갑자기 한쪽에서 울음소리가 들린다. 혈액을 뽑고 있던 남자아이 하나가 무서웠던지 목이 터져라 울음보를 터뜨린 것이다.

어떤 아이는 다가와 갑자기 목을 껴안고 조르기도 했다. 그리고는 다시 원래의 웃는 모습으로 돌아가 언니·오빠를 대화듯 한다.



원생들은
KBS-2TV
“전국은 지금”
촬영팀의
카메라 앞에서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또 이날 원생들을 위해 무료검진에 특별히 참석한 탤런트 조준 씨에게는 싸인을 해달라며 모두들 몰려들어 인기를 독차지하기도 했다.

위장촬영과 초음파 검사를 위해 특수이동검진버스 안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또다시 호기심으로 두리번거리며 살짝살짝 장비에 손을 대어 보기도 했다.

KBS-TV “전국은 지금”촬영팀이 촬영을 위해 들고 있는 카메라 앞에서는 재미있는 포즈를 취해 보이기도 했다(이날 검사장면은 4월29일 KBS-2TV 전국은 지금”에 방영되었다.)

원생들의 이런 때문지 않은 모습 때문일까. 잠시 가슴이 저려왔다. 어눌한 행동, 쉽게 나오지 않는 말이지만 각자의 몸놀림으로 나름대로의 의사를 표현하려고 노력하는 그들의 모습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 해인원 · 인덕학교생 150여명 검사

이날 무료검진을 위해 건협 경기지부는 특수 이동검진 차량과 검사요원 10여명을 동원했다. 이날 수용원생들이 받은 검사 종목은 진찰 · 혈압 · 소변 · 빈혈 · B형간염 · 심전도 · 혈액형 · 위장 · 초음파 · 기생충 검사 등이었으며, 검사결과는 추후 학교측으로 통보되었다.

구자승 해인원 · 인덕학교장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이



이날
원생들을 위해
특별히
무료검진에
참석했던
조춘씨에게는
싸인을 해달라며
모두들 몰려들었다.

위해 이렇게 무료검진을 해주시니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박아들은 건강상 여러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 이런 검진의 기회조차도 많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라며 감격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 “이들을 위해 더 밝은 웃음 선사할 터”, 조춘씨 밝혀

또 함께 검진에 참여해 잠시나마 원생들을 즐겁게 해주었던 조춘씨는 『어려움 속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원생들에게 오히려 우리들이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이들을 위해서라도 더 밝고 건전한 웃음을 선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건협 경기지부 이순 사무국장은, 『우리들의 작은 노력이 사회적 소외계층에게 작으나마 기쁨이 된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환원사업이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찬란한 햇살이 혜인원·인덕학교 앞마당을 흰하얗게 비추고 있는 오후, 비록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즐겁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원생들, 그들을 돌보는 인덕학교 교사들, 그리고 작으나마 그들의 도움이 되고자 하는 건협의 따뜻한 마음이 하나가 되고 찬란한 햇살을 더욱 아름답게 해 주었다. **㉞**